

국어학에서의 함의와 함축¹⁾

김태자(전주대)

〈목 차〉

1. 들어가기
2. 함의와 함축
3. 함언
4. 함축

1. 들어가기

국어사용에서 함의와 함축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쓰이지 않고 있다. 사전적인 의미 역시 별 차이가 없이 기술되고 있다.

그동안 영어학의 언어이론들이 영어 전공 학자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고 해석되면서 국어학의 연구에도 이런 이론들의 영향을 받아 연구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이 처음 소개될 때는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일으키며 받아들여졌으나, 차츰 영어의 이론들이 국어에 그대로 적용될 수만은 없는 모순이 드러나면서 그 한계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영어 전공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하는 대상어가 영어의 이론으로 영어나 한국어에 적용시키다 보니 때로

1) 이 논문은 한국어어미학회 제24차 전국학술발표대회(2009. 2. 13,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주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국어의 특성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언어학 자체에도 시대적인 연구 경향의 흐름이 있어왔지만 어떤 이론들은 소개될 때의 호응만큼 국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연구사적인 학설로만 남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형식 언어학과 같은 논리적 언어이론은 언어가 중국에는 철학과 깊은 관련을 가지기는 하지만, 너무나 논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다보니 언어학이라기보다 오히려 철학적인 면이 깊어 국어 연구에서는 자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기 일쑤였다.

본제에서 주어진 함의와 함축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국어 사용자들은 그 의미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 그러나 국어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 구분하고 있다. 함의와 함축의 의미적 차이 역시 영어전공 학자들에 의해 소개된 이론들에 의해 소개되고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국어학적인 해석은 영어 전공자들과는 다른 다소 광의의 의미적 국면으로 구분 해석하고 있다.

2. 함의와 함축

2.1. 사전적 정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함의(entailment)는 형식언어이론인 진리근거론의 진위의 개념에 의한 문장구조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미관계이고, 함축(implicature)은 문장의 발화에 의해 발생하는 화용론적인 의미 부분이다.

함의(entailment)와 함축(implicature)을 구분하기 위해 우선 국어에서의 사전적 의미를 보기로 한다(표준 국어 대사전, 두산, 1999).

- (1) 함의(含意): ①말이나 글 속에 어떠한 뜻이 들어 있음. 또는 그 뜻. ②(논)명제 상호 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하나. 명제 p가 참이면 반드시 명제 q도 참이 되는 경우에 p가 q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이다.
- (2) 함축(含蓄): ①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속에 간직함. ② 말이나 글이 많은 뜻을 담고 있음. ③ (문)표현의 의미를 한 가지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문맥을 통하여 여러 가지 뜻을 암시하거나 내포하는 일=임플리케이션.

다음은 언어학 사전에서의 구분을 보기로 한다(한신,1982: 259~360).

(3) 함의(entailment):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 어떤 문장 S_1 에서 다른 문장 S_2 를 사실적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논리형식이나 언어의 의미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때, 즉 S_1 이 참일 때 반드시 S_2 가 참이 되는 경우 ' S_1 은 S_2 를 함의한다(entail)'라고 한다.

(4) 함축(implicature): Grice가 1967~8의 William James 강연에서 도입한 일상 언어에서 쓰는 말. 'imply' 혹은 'implication'이라는 말은, 논리학에서 쓰는 質料的 함언(material implication)과 철학적 의미론에서 쓰는 엄밀함언(strict implication) 혹은 함의(entailment)의 개념을 훨씬 넘어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Grice가 말한 함축(implicature)이란, 넓은 의미의 함언(implication)과 좁은 의미의 철학적 개념인 함의 (entailment)를 어떤 점에서 동시에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사전에서도 해석상의 의미적인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다.

2.2. 함의와 전제

국어에서 함의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보기로 한다. 함의의 설명을 위해서는 대비된다고 인식되어 온 전제(presupposition)의 개념이 함께 언급되지 않을 수 없다. 전제 개념은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에서 특히 주목을 받아 왔다. 그 접근법이 논리적 함축 즉 함의와 전제의 구분, 단언과 전제의 대조(Frege, Strawson), 전제가 나머지 문장의 의미와 똑같이 단언이나 함의로 생각될 수 있는가(Russell) 등 다양한 방법이 철학적 문헌에 인용되었다(이익환. 권경원 공역 (Pragmatics)화용론, Stephen C. Levinson, 한신, 1992:198).

우선 함의는 주로 문장구조에서 논리적 관계로 비롯되는 의미관계로 때로는 단어의 의미에서도 비롯되는 의미 개념에서도 언급된다. 그렇다고 형식논리학에서 말하는 'if, then' 과 같은 데서 일어나는 함언(implication)과는 구분된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오히려 Grice가 말하는 관습적 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 고정함축)의 의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1) 영희는 술잔을 던졌다.
- (2) 술잔이 깨졌다.
- (3) 술잔이 깨질 수도 있고 깨지지 않을 수도 있다.

위 (1)의 문장은 결과적으로 (2)를 함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3)을 반드시 함의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능한 세계에서는 카페트 위라 깨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4) 나는 그가 집에 왔다 간 것을 알았다.
- (5) 나는 그에게 술잔을 던진 것을 후회했다.

위 (4) (5)의 예문은 (1)과 비교되는 전제(presupposition)개념으로 ‘그가 집에 왔다 갔다’, ‘술잔을 던졌다’를 전제하고 있다. 이 전제 개념은 삼단 논법에 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두는 전제(premise)와는 구분된다.

영어학에서는 다음의 문장을 전제 개념의 예로 들고 있다.

- (6) 영희는 외국남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했다.

이 문장은 안긴문장이 서술어 ‘알다, 후회하다’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의미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추측 가능한 의미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이들 전제 문장의 서술어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이들 두 비슷한 의미관계를 구분하기도 한다.

즉 함의 부분인 (1)을 부정하면 결과적으로 ‘술잔이 깨지지 않았다’가 되어 원래 긍정문일 때 함의인 (2)의 결과와 같지 않다.

그러나 (4)와 (5)에서는 전체 서술어를 부정한다고 해서 안긴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전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제 개념은 부정으로 취소되지 않으나, 함의를 가진 문장을 부정하면 함의가 달라진다. 함의와 전제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이런 부정의 방법으로 구분되는 의미 관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함의와 전제의 경계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곧 일반적으로 쓰이는 위에서 예를 든 전제의 예문이 전제를 부

정한 문장이 쓰일 때는 어색하다.

- (7) 영희는 사실은 외국남자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남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장을 부정해 보는 것이 전제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으로 제기되고, 전제의 정의도 부정과 함의 관계를 동원하여 공식화하려는 의미론적 입장도 있었다. 그러나 부정이 주문의 동사에만 걸리는 경우에는 전제가 살아남지만 문장 전체에 걸리는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 방법에 반대하는 학자도 있다(심재기, 이기용, 이정민, 의미론 서설, 집문당, 1984: 170).

Russel(1974)은 같은 문장의 논리의미 해석에서 함의이론으로 설명하고 있고, Strawson(1974)은 전제이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Wilson(1975), Kempson(1975) 등은 전제라고 하여 논의 되는 각 국면 중에 의미론적인 면은 함의라는 의미론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화용론적인 전제 면은 함축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Sellars(1974)의 방법론은 진리조건과는 관계를 맺지 않고, 성공적인 의사전달의 조건과 관계를 가지는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의 화용론적 전제를 언급하고 있다(이익환, 의미론개론, 한신, 1985: 210). 이 개념은 Grice(1975:57-58)가 말하는 관습적 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과 대화적 함축(conversation implicature)의 개념과 비교되는 것으로 관습적 함축(고정함축)은 함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대화적 함축은 화용론적 전제 개념이 된다.

- (8)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
(9) 프랑스 왕이 존재한다.
(10) 프랑스의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

Russel은 문장 (8)은 문장 (9)을 함의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8)이 참이면 (9)은 항상 참이 된다. (10)이 참이면 곧 (9)가 거짓이면 (8)은 거짓이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Russel이 논리적 함의를 의미론에 쓰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Strawson은 (8)과 (9)의 관계를 전제개념은 문장의 전제(sentence-presupposition)라고 정의하고 (9)이 거짓이면 (8)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

서 보면 Russel이나 Strawson 모두 진리치(truth value)를 따지는 진리조건적 의미론(truth-conditional semantic)의 접근 방법을 볼 수가 있다. 이는 같은 현상을 두고 서로 다른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함의와 전제의 개념이 근본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궁극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그 경계가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함의 역시 그 가능성에 대해 숙고함으로써 종종 주장되어 온 만큼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자연언어의 어휘와 표현의 모든 고정적 의미를 포착하려는 진리조건적 의미론의 실패를 보여준다.

2.3. 함의의 종류

함의는 일반적으로 문장 의미론에서 근거한다. 그러나 문장을 이루는 어휘 자체에서도 자질적인 함의 관계가 형성될 뿐 아니라 통사구조인 문장의 형식적 특성에서도 비롯한다. 문장의 형식적 특성에서 비롯하는 함의는 전통적으로 논리적 함의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 논리적 함의에 대해 사실적 함의라 하여 세상지식을 요구하는 함의를 약한 함의라 하여 구분하는 이도 있으나(윤평현, 국어의미론, 역락, 2008: 280-281/ 이성범, 언어와 의미, 1998:64-65), 이는 어디까지나 세상지식이나 그 발화로의 정확한 전달을 위한 배경지식들로 화용론적인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

2.3.1. 어휘 의미에서의 함의

언어내적 요인에 의해 생성되는 모든 세계에서 필연적으로 성립되는 함의로서 어휘에서 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함의 관계이다. 단어에서 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에 놓이는 단어는 단어 자체에서 함의 관계를 형성한다.

- (1) 난초는 생물이다.
- (2) 생물은 난초다.

2) '함의'란 Russel의 함의, Strawson의 전제, 혹은 의미론적 전제, Grice의 고정함축(관습적 함축) 등으로 불리는 의미 국면을 지칭하는 용어이다(이익환, 의미론개론, 한신, 1985: 212)

- (3) 그는 키가 크다.
- (4) 그는 키가 작지 않다.

여기서 (1)의 문장은 의미적으로 적합하다. 그러나 (2)의 문장은 적합하지 않다. 여기서 하위어인 ‘난초’는 상의어인 ‘생물’을 함의 하지만 이 역인 (2)의 상위어 ‘생물’은 반드시 ‘난초’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함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관계이므로 일방적 함의라 부른다. 그 외에도 (3)과 (4)의 같은 경우도 있다. (3)은 (4)를 함의하지만, 이의 부정인 (4)는 성립하지 않는다. (3)의 역인 ‘키가 작지 않다’고 해서 꼭 ‘키가 크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도의 대립관계에는 중간 단계가 있으므로 (4)는 (3)을 함의하지 않는다.

- (5) 닭이 계란을 낳았습니다.
- (6) 닭이 달걀을 낳았습니다.

이 이외에 동일한 문장 구조에서 위 문장 (5)은 (6)를 함의한다. 또 (6)도 (5)를 함의하는데 이는 동의어인 ‘달걀’과 ‘계란’이 교체될 수 있는 상호함의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 이외 조사나 어미 등에 의해서도 함의는 일어날 수 있다.

- (7) 너까지 갔었니?
- (8) 너조차 갔었니?
- (9) 너만 갔었니?
- (10) 너도 갔었니?

위 예문들은 조사 자체의 의미에 의해 (7),(8)은 ‘극단적’ (9)는 ‘단독적’인 의미를 가지고, (10)은 ‘역시’ 등의 조사 자체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서도 (7), (8)은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존재가 이미 있음을 함의 하고 있고, ‘그들이 갔었음’을 전제한다. (9), (10) 역시 ‘다른 사람’의 존재를 함의한다.

2.3.2. 통사구조에서의 함의

함의는 문장구조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문장 p가 참일 때 문장 q가 참이면 문장 p는 q를 함의한다는 조건에 따라 다음 문장을 보기로 한다.

- (11) 수진이와 효숙이는 채식주의자이다.
- (12) 수진이는 채식주의자다.
- (13) 효숙이는 채식주의자다.
- (14) 수진이가 채식주의자이거나 효숙이가 채식주의자다.

(11)이 참이면 (12)와 (13)도 참일 수밖에 없으므로 (11)은 (12)와 (13)을 함의한다. 그러나 (14)는 (11)과 (12),(13)을 함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어느 한 문장의 성분의 선택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그 외 함의를 전통적인 논리적 함의와 세상지식을 요구하는 사실적 함의로 나누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논리관계인 함의의 개념은 아니라고 본다.³⁾ 이러한 세상지식은 어느 한 사회의 배경지식이나 사회적 요소,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맥락의 요인이 관여하는 것들로, 이와 같은 함의는 그 문장이 쓰이는 사회에서만 성립되므로 전통적인 필연적 논리 관계가 아닌 오히려 다음에 언급할 사회적 배경 설명이 부가되는 화용론적인 측면의 함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1) 지현은 찬호의 공을 연거푸 세 개 헛스윙했다.

(2) 지현은 아웃되었다.

위 예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구 규칙이라는 세상지식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전통적인 논리적 함의에 비해 약한 종류의 함의(weak entailment)인 사실적 함의라고 말하고 있다(이성범, 언어와 의미, 태학사, 1999 : 64- 65).

(3) 경찰관이 음주 단속에서 혈중 알콜농도가 0.10%를 넘었다.

(4)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위 예문 역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기준에 대한 세상지식에 의해 함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를 사실적 함의(weak entailment)로 보고 있다(윤평현, 2008: 280-281).

3. 함언

함의는 문장에서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이와 구분이 되는 함언(implication)이 있다. 논리적 내용 또는 의미론적 내용으로만 유도되는 추론을 말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넓은 의미의 함축에 넣기도 한다. Grice가 말하는 관습적 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으로의 함축의 부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함언은 영어에서 주로 연결사 'if ... then'이 들어 있는 두 문장의 결합에서 정의 혹은 부분 정의, 사실조건의 반대, 또는 앞 문장의 조건이 진실 때만 유효한 조건 등을 따질 때 쓰이는 개념이다.

함언은 형식 논리학에서 'p는 q를 함언한다'는 것은 p와 q가 모두 참일 때 뿐만 아니라 p가 언제나 거짓일 때도 참이다. 곧 'P의 참과 Q의 거짓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을 때, 그 때 p는 q를 함언한다'는 것으로 이 이중문의 앞 절(영어 이론에서는 전건(antecedent)과 뒤 절(영어이론에서는 후건(consequence)에서는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이 이론 역시 형식논리에서의 진리치에 의한 예측 가능한 의미분석의 한 방법이다(심재기.이기용.이정민, 의미론 서설, 집문당,1984: 83)

(1) 그가 대학에 합격하면, 아버지가 노트북을 사주어야 한다.

함언은 이런 조건문으로 보통 표현된다. 'p는 q를 함언한다'는 진리치는 정 의상 p와 q가 참이 참일 때뿐만 아니라, p가 언제나 거짓일 때도 참이다. 즉 '대학에 떨어져도' 노트북을 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함언과 같은 진리조건에 의한 철학적인 형식의미론은 그 자체에서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러한 형식의미론은 영어의 이론으로 국어학의 의미론 분야에 소개되었지만, 영어이론이 그대로 국어에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닌데다 이미 영어학에서 한계를 가져온 철학적인 진리근거론이 국어학에 적용되기에는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했다.

4. 함축

함축은 함의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실제로 말해진 것(what is actually said)과 함축된 것(what is implied)의 구분이 필요하다. 함축은 관습적 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 고정함축)과 대화적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으로 분류한다(Grice, 1975).

관습적 함축은 발화에 나타나는 연결사 등의 단어인 ‘그래서, 그러면, 혹시, 어쩌면’ 등과 같은 단어의 특수한 속성들이나 어미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대화적 함축은 정상적인 담화 상황에서 그 문장의 발화에 의해 암시(imply)되는 것으로 대화나 글에서도 함축을 가질 수 있다.

Grice가 말하는 관습적 함축은 Russel의 함의나 Strawson의 전제와 유사하고, Grice의 대화적 함축은 Sellers의 개념으로 본 전제와 유사하다.⁴⁾

4.1. 함축의 종류

4.1.1. 관습적 함축

관습적 함축은 발화에 나타나는 특정한 단어나 연결어미 등의 단어들이 가지는 이휘적 특성들이나 통사상의 어미의 자질에 의해 일어나는 의미 함축이다.

- (1) 가. 그 때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다.
- 나. 그 때쯤 전화벨이 울렸다. 그러나 그는 기뻐다.
- 다. 그는 근검절약 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었다.
- 라. 그는 근검절약 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

4) 국어에서 주시경의 ‘국어문법’에서 함축이란 용어 쓰지 않았지만 같은 문장의 다른 해석을 ‘짚뭇갈’에서 화용론적인 개념으로 언급하고 있다(국어문법:50). 그 문장이 지시하는 현실적 대상의 의미를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바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짚뭇갈’에 나타나는 도해법과 의미해석이론은 주시경의 독창적 생각인데 현대 언어이론의 관점에서 서더라도 조금도 손색없는 이론적 기초 위에서 있는 것이다(고영근, 이현희 교주, 주시경국어문법, 탑출판사, 1986:211). 국어문법에는 담화의 목적에 따르는 알림문장, 물음문장, 추김문장, 시김문장이라든가 문장구조의 특성에 따르는... ‘짚뭇갈’의 꼬트머리에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말로 그 뜻을 밝게 풀어내지 못하면 그림으로 밝히고 그림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말로 풀고 이 두가지로도 풀 수 없는 것은 마음(속뜻)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김병제, 조선어학사, 1984, 탑출판사: 249).

마. 어머니는 늘 성실을 말씀하신다.

바. 어머니는 늘 성실을 말씀하셨다.

예문 (1.가)와 (1.나)는 같은 조건이지만 (1.가)는 원인을 이끄는 명제를 함축하고 있고, (1.나)는 대조나 의외성을 제공하는 명제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단어 ‘그래서, 그러나’에서 오는 관습적인 함축인 것이다. 예문 (1.다) 역시 원인을 이끌고 있고, (1.라)는 연결 내지 부가성을 제공하는 명제를 함축하고 있다. (1.마)와 (1.바)는 시제나 서법의 통사적 차이에 의한 지속성과 일회성의 의미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김태자. 국어문법교육론, 2005: 226).

관습적 함축은 대화적 함축과는 대조적으로 맥락의 본질적 가정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취소될 수 없으며, 사용된 특정한 어휘에 의존하므로 분리될 수 있고, 계산된 것이 아니라 비교적 확정된 의미를 가지고, 진리조건을 가진 표현들과 연관성을 가지는 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관습적 함축은 진리의미론의 실패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며, 대화적 함축과도 구분된다. 따라서 화용론을 연구하는 국어학자들은 대화적 함축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4.1.2. 대화적 함축

대화적 함축은 정상적인 담화상황에서 그 문장의 발화에 의해 암시(imply)되는 것으로 대화나 글에서도 함축을 가질 수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말해진 것과 함축된 것의 구분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나아가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관심이 모아진다.

다음 예문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 사용된 의미가 달라진다.

(2) 콩밥 좀 먹어 볼래?

이는 밥 먹는 자리라면 ‘콩밥 먹을 것’을 권유하는 의미가 되겠지만, 경찰서 안이라면 ‘감옥살이 좀 해야겠네’라는 위협적인 발언이 되는, 두 가지 해석이다. 가능한 국면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정확한 맥락이 부여되는 상황이라면 이 발화의 뜻은 분명해진다.

Grice는 대화적 함축을 ‘일반화된 대화적 함축(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과 ‘특수화된 대화적 함축(particular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화된 대화적 함축은 발화내의 어떤 형태의 용법이 정상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함축으로 특별한 맥락(context) 작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화된 대화적 함축은 발화에 의한 어떤 특별한 맥락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로 추론이 요구되는 함축 관계이다.

국어학에서는 이런 대화적 함축의 하위 구분을 그다지 하지 않고 주로 넓은 의미의 대화적 함축으로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⁵⁾

4.2. 대화적 함축의 특성

Grice는 대화적 함축으로 간주되려면 대화의 원리(conversational principle)인 자신의 발화가 주고 받는 이야기의 목적이나 방향에 의해 요구 되는대로 제 때에 대화에 이바지하게끔 하라는 기본적인 협동원리(conversational principle)를 지킨다는 가정 아래, 하위 원리인 격률(maxim)들과 관련시키고 있다(Grice, 1975: 45). 곧 (정보)의 양(Quantity), 질(Quality), 관계(Relevance), 양태(Manner)의 격률을 말하고 있다. 대화적 함축은 이들 격률들을 지키는데 있지만, 이를 위배함으로써 더욱 함축이 두드러지고 그 깊이가 깊어진다.

함축이 대화적이기 위한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는 곧 대화적 함축의 검증 방법이 되기도 하다. 첫째, 그 함축을 지니는 표현 자체의 의미의 일부여서 안 된다. 둘째, 맥락의존적이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취소 가능해야 한다. 셋째, 문장의 진리조건이어서는 안 된다. 넷째, 둘 이상의 함축이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그 함축이 없으면서 별 차이가 없는 어떤 다른 표현을 문장에 바꾸어 넣을 수는 없다(Grice, 1967) 등이다. 이런 특성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관습적 함축으로 간주되기도 하나, 이 검증 방법 자체가 화용론이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⁶⁾

5) 일반화된 함축은 언어구조에 의지하며 맥락을 크게 요구하지 않아 추론으로의 수행과정이 1차적이다. 그러나 함축을 언급할 경우 국어학에서는 주로 맥락에 의해 산출되는 특수화된 함축에 관심을 가진다. 특수화된 함축은 그 수행과정이 1차적인 일반적 함축보다 보다 많은 맥락과 추론이 작용하므로 그 수행과정이 2차적이라 할 수 있다(김태자, 국어문법교육론, 2005: 220).

6) 이는 곧 비분리성(non-detachability), 취소가능성가능성(cancellability), 계산가능성(calculability),

몇 예를 보기로 한다. 다음 예문은 경우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함축의 한 예이다.

- (3) 가. 당신의 나에게 술과 같은 존재요.
나. 당신은 술처럼 나를 취하게 하는 소중한 사람이다.
다. 당신은 나에게 술처럼 몸에 좋지 않은 사람이다.

함축은 실제로는 다)의 의도를 가지고 가)와 같이 말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입장이 난처해질 경우, 나)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취소 가능성을 가진다.

- (4) 가. 공기가 참 탁해.
나. 바람 쐬고 와야지.
- (5) 가. 내일 부서이동이 있다는데.
나. 바람 쐬고 와야지.
- (6) 가. 이 일을 마저 하고 가셔야지 매일 이 핑계 저 핑계만.
나. 바람 쐬고 와야지.

위 예문에서 (4.나)의 ‘바람 쐬고 와야지’는 실제로 공기가 탁해 바람을 쐬고 싶다는 뜻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5.나)의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혹은 (6.나)처럼 일하기 싫어 나갔다 온다는 함축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함축에서 그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어떤 발화 맥락이 상황에 맞게 제공된다면 그 뜻은 분명해진다.

- (7) 그는 하늘이 푸른 줄을 이제 알았다.

위 예문은 그는 비로소 마음의 안식을 찾았다는 함축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하늘이 푸른 줄을 예전부터 알았지만 진리조건의 기준에 의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 (8) 그는 물도 마시기 싫었다.

위 예문은 ‘그는 아무 것도 먹기 싫었다’를 함축하지만, 같은 다른 표현인

비고정성(non-conventionality), 비확정성비고정성(non-conventionality)으로도 불린다(이익환, 권경원공역, 화용론, 130-133).

‘그는 음식도 먹기 싫었다’ 등으로 대치해 넣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김태자,2005: 228)

5. 맺음말

함의란 Russel의 함의(entailment), Strawson의 전제(presupposition)와 같은 개념으로, Grice의 관습적 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 고정함축) 등으로 불리는 의미국면을 지칭한다. Sellers의 개념은 문장의 발화를 화자의 전제 개념으로, 화자의 믿음에 기인하고 화자의 맥락과 관련이 있으므로, 화용론적인 국면으로 Grice의 대화함축과 유사하다.

함의는 단어의 자질이나 문장의 형식상 특성을 밝히는 것으로,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언급하는 진리조건적 의미론의 개념으로 함의와 전제의 개념이 언급된다. 함의와 전제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관련된 서술어를 부정함으로 달라지는 결과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나 함의와 전제는 다 같이 단어의 자질이나 문장 사이의 의미적 관계성을 밝히는 개념들이었으나, 서로 보는 견해가 다를 뿐, 그 경계가 애매하여 엄격하게 그 구분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함축은 Grice의 대화적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을 말한다. Grice는 대화적 함축을 ‘일반화된 대화적 함축(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과 ‘특수화된 대화적 함축(particular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화용론에 관심을 가지는 국어학자들의 관심은 자연 맥락이 요구되는 특수화된 함축에 관심을 가지지만 이 두 부분을 크게 구분하여 다루지는 않고 있다. 함축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화자와 청자가 대화의 목적이나 방향에 의해 요구되는 만큼 대화에 이바지하라는 협동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 아래 네 가지의 격률이 요구된다. 특히 이런 격률의 의도적인 위반을 할 때 함축은 더욱 분명해진다.

곧 함의는 진리근거론에 의한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언급하는 의미론적 개념이고, 함축은 화용론에 의한 맥락이 작용하는 맥문의 ‘말해진 것’과 ‘함축된 것’ 곧 전달의미와의 관계를 언급하는 의미론적 개념이다.

주제어 : 함의, 전제, 관습적 함축, 대화적 함축어

〈참고문헌〉

- 구자은(2005), 『화용론과 담화』, 울산대학교 출판부.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광해(1997), 『국어지식교육론』, 서울대출판부.
김봉주(1984), 『형태론』, 한신문화사.
김태옥·이현오 공역(1993), 『인지적 화용론』, 한신문화사.
김태자(1987), 『발화분석의 화행의미론적 연구』, 탑출판사.
김태자(1989), 「간접화행과 대화적 함축」, 『국어학』18, 국어학회.
김태자(1992), 「담화분석과 그 과정」, 『국어국문학』107, 국어국문학회.
김태자(2002), 「관례적 사용과 대화적 함축」, 『국어교육』107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김태한(1982), 『영어학개론』, 을유문화사.
남광우(1997), 『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남기심·이정민·이홍배(1983), 『언어학개론』, 탑출판사.
박영순(1994), 『한국어 의미론』, 고려대출판부.
심재기·이기용·이정민(1984), 『의미론서설』, 집문당.
이기동·이용재(1983), 『현대언어학』, 한신문화사.
이을환·이철수(1997), 『한국어문법론』, 개문사.
이익환(1985), 『의미론개론』, 한신문화사.
이익환·권경원 역(1992), 『화용론』, 한신문화사.
이정민·배영남(1982), 『언어학사전』, 한신문화사.
이정민·이병근·이명현(1982), 『언어과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지성사.
윤평현(2008), 『국어의 미론』, 역락.
정희자(2002), 『담화와 추론』, 한국문화사.
최규수(2009), 「전제와 함축에 기초한 보보조사의 의미분석(1),
『한글』 284, 한글학회.
최창렬·심재기·성광수(1986), 『국어의미론』, 개문사.
Grice, H.P.(1975),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vol3,
New York, Academic Press.

- Horn, L.R. & Ward, G. (2004), *Pragmatics*,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Robinson · Douglas (2006), *Introducing performative pragmatics*, New York, Routledge.
- Lverson, S.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s】

Entailment and Implicature in Korean Linguistics

Kim, Tae-j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difference between 'Entailment' and 'Implication'. Entailment refers to qualities of a word or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 sentence and is similar to the concept of 'Presupposition' which denotes the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wo prepositions. These two concepts are distinguished by the results from the negation of the predicate. However, the distinction between them is not very clear. Implication refers to conversational implicature which can be divided into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and 'particular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Implication is determined by the interlocutors' purposes and directions during a conversation and thus, requires the cooperative principles. In summary, entailment is a concept which shows a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wo prepositions, whereas implication presents a suggested meaning of a preposition in a given context.

Key words: entailment, presupposition, conventional implicature, conversational implicature

이 논문은 2009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1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0년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